

中世語의 樣態·情感的 叙法에 대한 研究

高 永 根

(國文科 副教授)

차 례

- I. 머리말
- II. 原則法
- III. 確認法
- IV. 感動法
- V. 總括—樣態·情感的 叙法—

I. 머리말

中世語의 語尾構造體는 現代語보다 複雜한 面이 있어서 오랫동안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正體가 밝혀지지 못한 것이 많다. 이 곳에서는 先語末語尾에 依存하는 一聯의 叙法關聯의 形態素들을 가려 내어 使用上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함으로써 樣態·情感的 叙法範疇을 體系化해 보려고 한다.

II. 原則法

2.1.0. 原則法이란 現代語에서 直說法과 回想法의 先語末語尾 “-느-”와 “-더-”에 後續하는 “-(으)니-”의 直接的 所屬형을 가리킨다. 現代語에는 “-니-, -ㄴ-” 등의 異形態 이의 語末語尾가 表面上으로 드러나지 않는 “-니” 등이 있으나 中世語는 그 形態가 비교적 單一하다.¹⁾ 곧 “-(으)니-”로 實現된다. 이밖에도 中世語에는 動詞語幹에 直接 統合되는 “-(으)니-”가 있는가 하면 現代語의 疑問法語尾 “-느냐, -(으)냐”의 直接的 遡及形인 “-느니여, -(으)니여”에서도 “-(으)니-”를 發見한다. 이 경우의 “-(으)니-”²⁾도 종전에는 原則法과 有關한 것으로 처리된 일이 있으나(後述), 構造·意味의 方面에서 差異가 현저하므로 原則法의 테두리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으)니-”의 析出에 필요한 語形을 動詞는 “-ㅎ-”로, 形容詞는 “-하-”로, 指定詞는 “-이-”로 대신하여 提示한다.³⁾

1) 現代語의 原則法에 대한 形態論의 分析과 異形態의 記述은 高永根(1965:§2.3) 참조.

2) 이 곳의 “-(으)니-”는 接續連結語尾의 “-(으)니” 및 冠形形 “-(으)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언급될 것이다.

3) 구체적 語形은 허용(1975:966-7)과 本稿의 §2.2.를 참조할 것, 그리고 “-(으)니-”의 分析에 필요한 다른 語形은 허용(1975:958-978)참조.

- (1a) 흐느니라, 흐느니, 흐느닝다, 흐느니이다
 (1b) 하니라, 하니, 하니이다
 (1c) 이니라, 이니, 이니이다
 (2a) 흐더니라, 흐다니라, 흐더니, 흐더니이다
 (2b) 하더니라, 하더니, 하더니이다
 (2c) 이러니라, 이러니, 이러니이다.
 (3) 흐리니라
 (4) 흐리러니라
 (5a) 흐거니라
 (5b) 하거니라
 (5c) 이어니라

2.1.1. (1a)의 “흐느니라”는 直說說明法 “흐느다”와 比較하면 “-니-”가 析出된다. 반말의 形式인 “흐느니”에서는 表面上으로 語末語尾와 化合되었고, ㅎ야씨體인 “흐느닝다”는 그 直說說明法 “흐느다”와의 比較에 의해서 쉽게 “-니-”가 分간된다. (1b)(1c)는 ㅎ리體의 直說說明法 “하다, 이라”와의 比較에 의하여 간단히 “-니-”가 析出된다. “하니, 이니”는 반말의 形式이고 ㅎ야씨體는 實在形이 발견되지 않으나 *하닝다” *이닝다”로 假想될 수 있다. 動詞에 統合될 때는 “-니-”가 直說法的 “-느-”에 後行하나 形容詞 및 指定詞에서는 語幹에 직접 統合된다. 이때에는 語幹에 받침이 있으면 媒介母音이 선택된다. 現代語와 차이가 없다(高永根 1965:§2.3.)

(2a)의 “흐더니라”도 (1a)와 같다. ㅎ리體의 回想說明法 “흐더라”와 比較하면 “-니-”가 分간된다. “흐다니라”는 主體가 화자일 때 선택되는 것이다. “흐다라”를 고려하면 “-니-”가 確認된다. “흐더니”는 반말體인데 (1a)의 “흐느니”와 같이 語末語尾가 밖으로 露出되지 않았다. (2b)(2c)에서도 回想法 “흐더라, 이러라”와 比較함으로써 “-니-”를 얻는다. “흐더니, 이러니”는 모두 반말體다. ㅎ야씨體는 “*흐더닝다, *하더닝다, *이러닝다”로 假想된다.

(3)은 推測法 “흐리라”와 관련지음으로써 “-니-”가 析出된다. 文證되는 것은 ㅎ리體만 있으나 반말體 “*흐리니”, ㅎ야씨體 및 ㅎ쇼씨體 “*흐리닝다, *흐리니이다”를 假定할 수 있다.

(4)는 推測回想法 “흐리러라”와 比較함으로써 “-니-”를 얻는다. 文證되는 것은 ㅎ리體뿐이나 (3)과 같이 假想形을 再構할 수 있다.

(5)는 杜詩諺解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語形이나 動詞, 形容詞, 指定詞에 걸친 用例가 두루 確認된다. 確認法 “흐거다. 하거다. 이어다”(後述)와 比較함으로써 “-니-”를 얻는다. 현재까지는 ㅎ리體만 確認되어 있으나 각 尊卑法에 걸쳐 假想形을 再構할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原則法 語形을 尊卑法과 品詞 및 叙法에 따라 圖表로 提示한다. 假想形도 함께 提示하기로 한다.

叙法 品詞 尊卑法		直 說 法	回 想 法	推 測 法	推測回想法	確 認 法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ㅎ느니라 하니라 이니라	ㅎ더(다)니라 하더니라 이더니라	ㅎ리니라 *하리니라 *이리니라	ㅎ리리니라 *하리리니라 *이리리니라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ㅎ느닝다 *하닝다 *이닝다	*ㅎ더닝다 *하더닝다 *이더닝다	*ㅎ리닝다 *하리닝다 *이리닝다	*ㅎ리리닝다 *하리리닝다 *이리리닝다	*ㅎ거닝다 *하거닝다 *이어닝다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ㅎ느니이다 하니이다 이니이다	ㅎ더니이다 하더니이다 이더니이다	*ㅎ리니이다 *하리니이다 *이리니이다	*ㅎ리리니이다 *하리리니이다 *이리리니이다	*ㅎ거니이다 *하거니이다 *이어니이다	
動 詞 形 容 詞 指 定 詞	ㅎ느니 하니 이니	ㅎ더니 하더니 이더니	*ㅎ리니 *하리니 *이리니	*ㅎ리리니 *하리리니 *이리리니	*ㅎ거니 *하거니 *이어니	

2.1.2. 앞에서 필자는 疑問法에 나타나는 “-(으)니-”를 原則法의 테두리에서 除外한다고 하였다. 허웅(1975:882-891)에는 疑問法의 “-(으)니-”를 說明法의 “-(으)니-”와는 勿論, 冠形詞形의 “-(으)ㄴ”과 同質視하여 확정법(기정법)이라 부르고 있다.⁴⁾ 3 가지 活用形에 나타나는 “-(으)니-”와 “-(으)ㄴ”을 構造 및 意味의 次元에서 구분하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에서 필자는 原則法의 形態素들을 분간해 낼 때 그것이 缺如된 直說說明法 “ㅎ느다”類의 形式과의 比較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곳에서도 같은 基準의 適用이 要望된다. “-(으)니-”가 挿入된 疑問法 形式을 들어 본다.

- (5a) ㅎ느너(ㅎ라體), ㅎ느닛가(ㅎ야씨體), ㅎ느니잇가(ㅎ쇼셔體), ㅎ느니(반말)
- (5b) 하(이)너(ㅎ라體), 하(이)니잇가(ㅎ쇼셔體), 하(이)니(반말)

(5a)는 動詞에, (5b)는 形容詞 및 指定詞에 “-(으)니-”가 각각 나타나는 것이다. (5)에 나타나는 “-(으)니-”가 有意的 單位로서의 資格을 가지려면 그것이 缺如된 다음의 語形이 存在해야 한다.

- (5a') *ㅎ느어(*ㅎ너), *ㅎ느가, *ㅎ느잇가
- (5b') *하(이)어, *하(이)잇가

그러나 이들 語形은 存在할 수도 없고 그 存在가 기대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疑問法의 “(으)니”는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가”와 統合되어 疑問法語尾를 形成하는 것으로

4) 허웅(1975) 이외에도 疑問法의 “-(으)니-”를 說明法의 “-(으)니-와 同質視한 것으로는 나진서(1972), 李仁模(1976) 참조.

보아야 한다. ㅎ라體에서는 現代語의 “-(으)나”의 소급형 “-(으)너”가 큰 어려움 없이 확
인된다. 그러나 ㅎ아씨體, ㅎ쇼서體에서는 尊卑法의 標識 “-스-, -잇-”이 介在하기 때문에
疑問法語尾의 確立이 쉽지 않다. 不連續形態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ㅎ아씨, ㅎ쇼
서體의 疑問法 語尾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⁵⁾

(5c) “-니...가-”

반말에서는 “-니”가 疑問法語尾로 確認된다.

疑問法의 “니”가 有意的 單位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과 같은 構造的 側面뿐만 아니
라 意味論的 次元에서도 保證된다(後述).

動詞에 직접 統合되는 “-(으)니-”도 原則法의 테두리에서 除外되어야 한다.

(5a) ㅎ나라(ㅎ라體), ㅎ니이다(ㅎ쇼서體), ㅎ니(반말)

(5b) 하나라(ㅎ라體), 하니이다(ㅎ쇼서體)

(5c) 이나라(ㅎ라體), 이니이다(ㅎ쇼서體)

앞서 確認한 原則法은 動詞의 경우 “-느-, -더-”에 後行하는 것인데 (5a)는 語幹에 직접
통합된다. 意味도 달라서 “-느-, -더-”가 先行하는 (1a)의 “-니-”는 보통 原則的 意味를
表示하는 데 대해서 (5a)는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는 時相의 特性을 띠고 있다. 形容詞
와 指定詞에서는 原則法과 構造的 差異가 없다. 形態가 同一하기 때문이다. (1b)(1c)와
(5b)(5c)의 形態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意味로써 辨別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⁶⁾

疑問法에 나타나는 “니”는 하나의 形態素의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5)의 說明法 語形들
은 分離가 가능하다. (5a)는 “ㅎ다, ㅎ이다”, (5b)는 “하다, 하이다”, (5c)는 “이러, 이이
다”와의 비교에 의해 분석이 용이해진다.

2.2.0. 前項의 圖表에서 提示한 叙法의 順序에 따라 각 경우에 나타나는 原則法 “-(으)
니-”의 意味上的 特殊性을 究明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原則法이 나타나는 場面の
特性和 그것이 表示하는 時相에도 留意할 것이다. 場面은 相關的 場面인 對話와 單獨的 場
面인 獨白 및 地文을 意味한다⁷⁾. 對話는 “ ”로써, 獨白은 < >로써 각각 表示하고 地文
과 詩文은 特別한 表示를 하지 않는다.

2.2.1. 直說法

5) 不連續形態(diskontinuierlich)의 代表的인 것은 獨逸語의 分離前綴動詞, 過去分離形態素이다.

Sie legt den Mantel ab (ablegen)

ge-hob-en, ge-sag-t

6) (5b)(5c)에 대한 意味는 본고에서도 論議되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中世語 叙法을 總括하는 자리에
서 구체적으로 究明될 것이다.

7) 場面の 區分과 이를 기초로 한 現代語의 終結語尾의 體系化에 대하여는 高永根 (1976: I ;1974:
§4.1.) 참조.

直說法이란 直說法 “-느-”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느니라, 하니라, 이니라; 하느
 념다; 하느니이다, 하니이다, 이니이다; 하느니, 하니, 이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찌 모로매 하느니라”(釋詳 11:36b)
- (2) “이 南堀入 仙人이 할 싸를 길어 내니...그 쫄 하닐 時節에 자취마다 蓮花 | 나느니이다”(釋詳
 11:27b-28a)
- (3) “舍利弗아 너희 부텨 마를 고디 드르다 거츠디 아니하니라”(釋詳 13:47b)
- (4) “더 藥師瑠璃光如來入 十二微妙上願이시니라”(釋詳 9:10a)

위의 用例들은 相關의 場面에 쓰이기는 했어도 청자가 직접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用例
 (1)은 五百太子가 연못가에 모여 앉아 물밑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일종의
 集團 獨白이라 할 것이다.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을 發話時點에서 不變的인 사실로 파악하
 여 서로 確認하는 것이다. (2)는 南堀仙人의 말이 움직일 때는 자취마다 연꽃이 생긴다는
 것이다. 화자인 仙人은 이러한 사실을 發話時點에서 既定的인 것으로 파악하여 청자인 大
 王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청자의 답변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通報行爲는 一方的 性格이
 농후하다. (3)은 世尊이 부처의 법이 虛妄하지 아니함을 不變的인 것으로 파악하며 舍利弗
 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텍스트상으로 볼때 사리불은 듣기만 하는 被動的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역시 一方的 通報行爲에 屬한다. (4)도 一方的 通報行爲다. 텍스트상으로 볼 때
 부처가 文殊師利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의 用例에서 發話時點을 表示하는 것은 “-느-”이고 不變的인 사실을 지시하는 것은
 “-(으)니-”이다. “-(으)니-”에 의해 表示되는 事件時는 發話時와 無關하다. 이는 “-(으)
 니-”의 指示內容이 不變的인 데에 緣由한다.

다음의 用例는 單獨의 場面에 나타나는 것이다.

- (5) 사롬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부매 便安의 하고지 홀 사르미니라(訓正)
- (6)楞伽山이 南天竺 바툼 마세 잇느니 神通 잇는 사르미사 가느니라(釋詳 6:43b)
- (7)尸棄는 大梵天王入 일후머니 初禪三天에 위두하니라(釋詳 13:6b)
- (8) 식미 기론 므른 마르래 아니 그츨찌 내히 이리 바르래 가느니(龍歌 2)

用例(5)는 왕이 백성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청자인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해
 석해 둔다. (6)는 협주의 地文인데楞伽山에 갈 수 있을 자격을 규정한 것이다. 작자가 독
 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7)은 협주에 나오는 地文이다. 작자가 發話 當時 尺
 棄가 初禪三天에 으뜸이라고 생각하여 독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8)의 話者는 용비어천
 가의 作者이고 청자는 王孫을 除外한 일반대중으로 짐작된다⁸⁾. 위의 用例는 (1)~(4)와는
 달리 完全한 一方的 通報行爲다. 時相의 特徵은 (1)~(4)와 다른 점이 없다.

8) 용비어천가는 語尾가 반말과 尊쇼서體로 되어 있다. 後者는 청자가 王孫임을 가리키고 前者는
 一般大衆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兩方的 性格을 띤 對話의 用例다.

- (9) “엇메 쥬이라 흐느닛가” “이 사롬들히 다 神足이 自在하야 衆生의 福田이 드릴쥬 쥬이라 흐느
닝다”(釋詳 6:18a-19a)
 (10) “네 겨지비 고분니여” 對答하수보되 “고분니이다”(月釋 7:10b)
 (11) 그 쓰리 무로되 “이 엇던 짜히잇가” 無毒이 對答호되 “이 大鐵圍山西面第一重海니이다”(月釋
21:24b)

用例(9)는 護彌가 須達에게, (10)은 부처가 難陀에게, (11)은 聖女가 無毒에게 하는 말로서 完全한 兩方的 通報行爲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用例 (1)~(8)에서 나타났던 不變的 事實을 일깨워 주는 用法을 쉽게 看取할 수 없다. *흐닝다⁹⁾, 고분이다, …重海이다”로 바꾸어도 좋은 單純한 直說說明法이 아닌가 한다. 특히 (9)(10)의 “흐느닝다, 고분니이다”가 不變的 用法이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用法과 無關하다는 것은 그 물음이 단순한 直說疑問法 (§2.1.2.)이라는 점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참조). 이러한 用法은 存在詞 “있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 (12) (婆羅門) 그 쏘드려 무로되 “그똥 아바니미 잇느니잇가” (그 쏘) 對答호되 “잇느니이다” (釋詳 6:14b)

疑問法의 “잇느니잇가”를 고려할 때 “잇느니이다”는 單純한 直說說明法에 지나지 못한다. 이는 (10)의 “고분니이다”와 併行된다. “있다”는 보통 直說說明法으로 “-느니라”를 取하지 마는 “-는다”로 붙는 일이 있어서 “잇느니라”의 直說疑問法의 用法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 (13) (부례) “네 이제…보느니 이제 어되 잇느뇨” (阿難) “世尊하…이제 祇隨林은 實로 堂 밧겨 잇느이다”(楞嚴 1:48a)

用例(12)을 고려하면 마땅히 “잇느니이다”로 되어야 할 것이다. 引用動詞로 쓰이는 “흐다”에서도 그런 사실을 발견한다.

- (14) 값안 사르닐 眷屬이라 흐느니라(釋詳 6:5b)

- (14') 夫妻하야 사로몬 헝더기 조터 몬하야 輪回를 벗디 몬하는 根源일쥬 죽사릿 因緣이라 흐니라
(月釋 1:12a)

(14)가 (14')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함은 “-느니라”가 直說說明法임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한다.¹⁰⁾

이로써 우리는 兩方的 通報行爲에 나타나는 直說法的 用法도 確認하였다. 그러면 위의 두 가지 通報行爲에 나타나는 “-(으)니-”의 意味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그것

9) “*흐닝다”는 흐야쥬體의 直說說明法의 假想形이다. 金忠會(1972:41) 참조.

10) 이 문제는 不定法을 다루는 마당에서 구체적으로 論議될 것이다.

은 “-(으)니-”가 缺如된 活用形과의 比較에 의하여 解明되어야 한다. 먼저 一方的 通報행위의 성격이 짙은 用例 (1)~(4)부터 검토하자.

- (1')...모로매 늙는다 cf. (1)
- (2')...蓮花 | 나늙이다 cf. (2)
- (3')...거즈니 아니하다 cf. (3)
- (4')...上願이시다. cf. (4)

이들은 모두 直說法의 形態다. “-(으)니-가 쓰인 文脈에 이런 活用形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같은 狀況에 나타나는 같은 品詞의 같은 活用形의 例文과 比較할 수밖에 없다.

- (15) “瞿曇이 弟子 | 두리여 묻 오늙이다”(釋詳 6:29b)
- (16) “닐곱히 너무 오라나”(月釋 7:2a)
- (17) “너와 내 同氣라”(楞嚴 1:41a)
- (18) “사르미 목수미 無常호 거시라”(月釋 7:2a)

用例(15)는 六師가 王에게, (16)은 阿那律이 跋提에게, (18)은 부처가 阿難에게 각각 하는 말로서 완전한 兩方的 通報行爲다. 直說說明法에도 一方的 陳述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편적인 것은 兩方的 陳述이다. 用例(15)를 (1)(2)와 비교하면 事件時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그런데 (1)(2)의 事件時는 發話時와 無關하였다. (16)(17)은 화자가 事件時와 發話時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3)(4)는 (1)과 같이 事件時는 發話時와 無關하였다. (18)은 “거시니라”로 바꾸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直說說明法으로도 原則의 意味를 表示할 수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單獨의 場面の 用例들도 “-(으)니-가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를 거쳐야 한다.

- (5') ...썩락미라 cf. (5)
- (6') ...가늙다 cf. (6)
- (7') ...위두하다 cf. (7)
- (8') ...*가늨¹¹⁾ cf. (8)

(8)의 “-(으)니-” 缺如形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 없고 (5')~(7')의 형태를 取하는 用例들은 (1')~(4')의 實例 (15)~(18)과 같이 兩方的 通報性格이 더해지고 대신 原則의 用法이 缺如될 것이 기대된다.

앞에서 필자는 “-(으)니-”에는 一方的 通報機能이 파악됨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화자가 사태를 파악하는 態度와 有關하다. 사태를 原則의인 것으로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意圖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通報行爲가 一方的일 수

11) 반말의 直說說明法은 主體가 話者일 때 선택되는 “하늨”만 있다. 이에 類推하여 “*하늨”를 假想할 수 있다. “하늨”의 구체적 用例는 다음과 같다.

天籠도 해 모드며 人鬼도 하나 數 업슬씨 오닐 묻 솔늨(月千 其26)

밖에 없다. 用例 (1)~(4)가 一方的 通報의 기능을 띠게 된 이유라 하겠다. 한편 用例 (15)~(17)에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어떤 要素도 찾을 수 없다. 사태를 단순하게 아무런 意圖의 介入없이 陳述하고 있다. 따라서 “-(으)니-”가 특별히 插入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으)니-”에 反映되는 화자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기준으로 樣態性 副詞의 插入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樣態性(Modalität)이란 話者가 命題의 事實性(Realität) 여부를 判斷하는 것이다.¹²⁾ “-(으)니-”가 插入된 (1)~(8)에는 命題를 강조하거나 確認하는 부사의 補充이 가능하다. (1)에는 “모로매”가 이미 쓰였고 (2)(6)(8)에는 “꼭, 틀림없이”, (3)(7)에는 “원래부터”, (4)(5)에는 “진실로”등의 부사를 插入할 수 있다. 한편 (15)~(17)에는 그러한 副詞의 補充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인다. (18)에는 “원래”와 같은 부사와의 共存 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 用例에는 原則의 用法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9)~(12)의 用例는 原則의 用法과는 無關한 單純한 直說說明法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強調·確認의 意味와 관련된 부사의 補充이 쉽지 않다. 이는 이때의 “-(으)니-”가 단순한 直說說明法을 뒷받침하는 根據가 된다.

2.2.2. 回想法

回想法이라 함은 回想法 “-더-”가 先接된, 圖表的 實在形 “하더니라, 하더니라, 이러니라; 하더니이다, 하더니이다, 이러니이다; 하더니, 하더니, 이러니”를 가리킨다. 用例가 혼치 않아서 直說法과 같이 包括的 記述을 하기가 어렵다.

(1) “비근 法王이시니 轉法을 조차 하더시니이다”(釋詳 24:37b)

(2) “無病이 第一이러시니 늠 爲하야 훈 句法도 니르신 지기 업고 상내 말 업더시니이다”(釋詳 24:39b)

用例(1)은 尊者가 王에게 자기가 經驗한 사리불의 과거행적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2)도 尊者가 왕에게 溥拘羅의 과거의 행적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둘다 典型的 對話다. 直說法에서는 發話當時 화자가 사태를 不變的·既定的으로 파악한 것을 상대방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는데 回想法에서는 不變的·既定的인 것은 두드러지지 않고 화자의 經驗事項을 청자에게 일러 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意味가 더 浮刻된다. 地文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 그 때 父王과 小王들이 牛頭栴檀香 남자로 太子 스르서고 寶塔 계여 供養하더시니라(月釋 21:219b-220a)

(4) 몸 더 사리불 모도오틱…金 부를 니면 十八億 사리미 나 몰더니라(釋詳 6:28a)

用例(3)은 本文의 地文이다. 話者(작자)의 직접적 經驗이 아니고 文獻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根據해서 자기가 직접 經驗한 것처럼 陳述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4)는 작자가 독자에게 북을 쳐서 사람을 모우는 舍衛國의 법을 해설한 것인데 (1)과 같이

12) 樣態性 부사에 대하여는 Helbig & Buscha (1975:449) 참조. 이는 또 최현배(1961:584)의 斷定的 話式副詞에 해당한다.

작자의 직접적 경험이라기보다 文獻에 근거한 陳述로서 독자를 일깨우는 것이다.

“ㅎ더니라”가 표시하는 意味는 “-(으)니-”가 缺如된 다음과 같은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說明되어야 한다.

- (1') ...ㅎ더시이다 cf. (1)
- (2') ...엿더시이다 cf. (2)
- (3') ...供養ㅎ더시다 cf. (3)
- (4') ...몰더라 cf. (4)

(1')(2')에서는 단순한 回想의 意味만 파악되고 (3')(4')에서는 回想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진술의 기능만 파악된다. (3')(4')에 해당하는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쁘테 몰 마즌 이리 다 願마터 도외더라(月釋 10:30b)

위의 用例는 化人の 神通力에 의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說明한 地文인데 化자의 經驗과는 無關하며 작자가 過去사실을 단순히 叙述한 것이다. 이때는 不定說明法 “-(으)니라”로도 바꿀 수 있다.

다음은 主體가 話者일 때 나타나는 “ㅎ다니라”의 例文이다.

- (6) “부테 方便力으로 三乘教를 비요문 衆生이 히나게 ㅎ다니라”(=…令得이리니라)(法華 1:158ab)
- (7) “내…方便力으로 權으로 이 域을 핑마켓다니라”(口訣文省略)(法華 3:196)

用例(6)(7)은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짙다. (6)은 부처가 舍利弗에게 하는 말이다. 口訣文에는 “-리니라”인데 “-다니라”로 된 것이 特異하다(허웅 1975:793). 언해 과정에서 생겨난 構文上的 차이라 하겠다. (7)은 道師가 대중들에게 하는 말이다. (6)(7) 다 화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함으로써 청자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意味는 “-(으)니-”가 缺如된 다음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究明될 수 있는 것이다.

- (6') ...ㅎ다라 cf. (6)
- (7') ...핑마켓다라 cf. (7)

現代語에서는 “-더니라”가 主體가 화자일 때는 선택되지 않는데(高永根 1965:§3.3.2.),¹³⁾ 中世語에서는 “-다니라”로 交替됨으로써 1人稱과 呼應된다. 이는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라”가 1人稱일 때 선택되는 語尾이기 때문이다(許雄 1958).

回想法에서는 直說法만큼 樣態性 부사가 자연스럽게 補充되지 않는다. 回想法에서는 原則의 用法이 많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일깨우는 面이 浮刻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2.2.3. 推測法

13) 現代語에서도 “-더니라”가 先語末語尾 “-었-”과 統合되면 1人稱과의 共存이 가능하다(高永根 1965:§3.3.2.).

내가 거기 먼저 갔더니라

推測法이란 推測法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리니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諸法이 幻 존하니 幻 존함도 得니 몰하리니라”(口訣文省略)(圓覺下 2-2:11ab)
 (2) 周室이 다시 興起하오미 맛당하니 孔門을 당다이 必로미 몰하리니라(=周室宜中興 孔門未應棄)(杜諺 6:21b)

用例(1)은 “入佛境界紀”에서 引用한 말이다. 狀況을 正確히 짐작하기 어려우나 부처의 설법의 한 구절이 아닌가 한다. (2)는 작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로 보고자 한다. (1)의 사건시는 발화시와 대체로 일치하고 (2)는 後行하지 않나 한다. 둘다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매우 강하다. 推測法에 나타나는 “-(으)니-”의 意味는 그것이 缺如된 다음과 같은 語形의 意味와 比較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 (1') ...得니 몰하리라 cf. (1)
 (2') 몰하리라 cf. (2)

推測法에 나타나는 “-(으)니-”는 발화시 내지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일을 推定的으로 일깨워 주는 것으로 解釋된다. 樣態性 부사는 “-(으)리-”와 “-(으)니-”의 성격으로 보아 “아마, 틀림없이 (꼭)” 정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¹⁴⁾

現代語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推測法의 “-(으)리-”와 “-(으)니-”의 統合이다. 현대어에서는 原則法의 先語末語尾 “-(으)니-”는 未來表示의 先語末語尾 “-겠-”과는 어울리지 못한다(高永根 1965:§3.3.4.).

2.2.4. 推測回想法

推測回想法이란 圖表의 實在形 “하리니라”를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回想法과 推測法에서는 直說法에서 目擊되던 原則的 用法은 減少되고 청자를 일깨워주는 화자의 意圖가 浮刻됨을 確認하였다. 推測回想法에서도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1) <부텃 일후미 大覺이샤...부텃의 와 문즈뵈면 당다이 간 썩홀 안르시리리니라>(月釋 21:21a)
 (2) “내 아랫 뉘에 이 經을 바다 니너 닐그며 외오며 늠드려 니르디 안하더든...三菩提를 썰리 得디 몰하리리니라”(釋詳 19:34b)

(1)은 “念호더”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聖女의 獨白으로 간주된다. (2)는 부처가 得大勢에게 하는 말인데 一方的 通報行爲의 성격이 짙다. 得大勢는 듣기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리리니라”는 統辭構造의 如何에 따라 叙實法과 叙想法의 기능을 표시하기도 한다.¹⁵⁾ 用例(1)은 事件時가 經驗時 이후임을 表示하는 데 대해서 (2)는 과거 사실의 假想을 나타낸다. 假想의 意味를 떨 때는 統辭構造에도 영향을 미쳐서 보통 “-더든”

14) 우리의 例에서는 “-(으)리니라”가 否定的 構文에 나타난다. 用例가 적어 무어라 斷定할 수 없지만 否定構文이 “-니-”의 插入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주목의 대상이 된다. 後日을 期約한다.

15) 李仁模(1976:144-159)에는 “-리리니라”의 意味를 叙實法과 叙想法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과 共存한다(~~~참조). 推測回想法 “-(으)리러라”에 이런 用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으)니-가 “-더-”와 결합하면 統辭構造를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¹⁶⁾ “-(으)리러니라”의 意味는 “-(으)니”가 缺如된 “-(으)리러라”와의 比較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1') ...아르시러러라 cf. (1)

(2') ...得디 불흐리러라 cf. (2)

統辭構造가 變化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으)리러니라”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경험 당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음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앞의 回想法, 推測法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原則法 “-(으)니-”가 推測法 “-(으)리-”와 共存하는 例를 目擊한다 (cf. §2.2.3.).

2.2.5. 確認法

確認法의 先語末語尾 “-거-”에 통합되는 “-(으)니-”의 用法도 앞서 나온 叙法에 後行하는 “-(으)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1) 넷 위 안헤 고지 절로 뱃고 봄나래 새 도로 늘어니라(原詩省略) (杜諺 8:34b)

(2) 故園에 든곤 謂水 | 흐르느니 이제 고지 正히 하거니라(原詩省略) (杜諺 15:31a)

(3) 秦 싸헤는 當당이 새 드리어니라(原詩省略) (杜諺 6:11b)

用例가 모두 杜詩諺解에서만 보인다(前述). (1)은 고향에도 봄을 맞아 꽃이 피고 새가 다시 날아온다는 것을 確認·強調하는 것이다. (2)는 杜甫가 봄을 맞아 고향의 경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꽃이 많이 피었을 것이라고 다짐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닌가 한다. (3)도 진나라의 옛땅에는 새달이 떴으리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詩文이어서 精確한 상황을 알기 힘들지만 “-(으)니-”가 缺如된 다음 語形과 비교해 보자.

(1') ...늘어다 cf. (1)

(2') ...하거다 cf. (2)

(3') ...드리어다 cf. (3)

(1')~(3')이 사태를 確定的으로 파악하는 데 대해서 (§3.2.1.), (1)~(3)은 그것을 既定 사실화하여 청자의 주의를 끄는 데 力點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確認法의 用例에도 다른 叙法과 같이 樣態性 부사 “틀림없이, 반드시” 등이 보충될 수 있다. (2)(3)의 “正히, 當당이”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2.3.0. 中世語의 原則法을 現代語의 그것과 관련시켜 가며 使用面의 特性을 살펴보고 意味上의 문제를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시켜 가며 究明해 보았다. 要點을 整理하

16) 感動法의 “-리랴다”도 반드시 “-더든”과 共存한다. 자세한 것은 §4.2.5. 참조.

고 이 문제를 다룬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3.1.

1. 原則法은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推測回想法, 確認法을 바탕으로 하여 成立된다. 現代語는 直說法과 回想法에서만 나타난다.

2. 原則法은 一方的 通報機能을 遂行하는 일이 많다.

3. 原則法의 事件時는 보통 發話時와 無關하다.

4. 原則法은 화자가 사태를 不變的·既定的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청자에게 알림으로써 주의가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이끌고 싶어할 때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2. 필자는 先語末語尾 “-ㄴ-, -더-” 등에 後行하는 “-(으)니-”를 대상으로 原則法을 세워 보았지만 中世語 文法研究를 더듬어 볼 때 이에 관련된 문제의 展開 樣相이 단순하지 않다. 최근의 李仁模(1976)을 除外한 모든 論者들은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으)니-”를 同質的으로 看做하여 冠形形의 “-(으)ㄴ”과 關連시켜 왔다.

劉昌惇(1964a:357)은 終結語尾에서 나타나는 “-(으)니-”를 語末連結語尾 “-(으)니”에서 轉用된 것이라 보고 既然形이라고 불렀다. 나진석(1971:245-257)은 說明法, 疑問法 및 冠形形에 나타나는 “-(으)니-, -(으)ㄴ”을 [니]로 代表하고 本質的 意味를 [끝남]으로 잡았으며 다른 先語末語尾 뒤에 나타나는 “-니-”는 時制의 意味가 喪失되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2.1.0.), 許雄(1975:882-891)에는 說明法, 疑問法의 “-(으)니-”뿐만 아니라 疑問法과 冠形形의 “-(으)ㄴ”, 그의 이른바 1人稱表示의 先語末語尾 “-과-”를 總括하여 「확정법」(기정법)으로 처리하였다. 나진석은 時制 關連 要素로 본 데 대해 그는 叙法의 要素로 처리한 것이다. 語幹에 직접 統合될 때는 확정법의 意味를 表示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으)ㄴ”과 “-(으)니-”가 다른 先語末語尾 아래 쓰일 때는 기능의 變化를 가져 온다고 한다. “-(으)ㄴ”이 “-ㄴ-, -더-, -리-” 등의 先語末語尾 아래 쓰일 때는 본디의 뜻을 잃어 버리며 “-(으)니-”가 위의 先語末語尾 아래 쓰이면 뜻이 변져 나가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同音的인 형태들을 일단은 同質視하되 환경에 따라 意味가 달라진다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실 이때까지는 構造的 내지 機能上의 差異點을 밝히려 했다가보다 형태상의 類似性에 依支하여 意味上의 共通性을 抽出하려고 시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 李仁模(1976:181-246)이다. 動詞에 직접 統合되는 “-(으)니-”는 과거시제, 先語末語尾 아래에 오는 “-니-”는 定立法으로 처리하였다. 그의 定立法은 우리의 原則法을 가리키고 과거시제는 우리의 不定法에서 論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疑問法의 “(으)니”를 原則法의 “-(으)니-”와 同質視했다든지 說明법 “-(으)니라”에 의해 나타나는 單純한 直說法的 功能을 가려내지 못한 흠들을 지니고 있다. 필자의 原則法은 疑問法의

“(으)나-”와 用言에 바로 統合되는 直說法的 “-(으)나-”를 除外한, 原則적으로 “-나-, -더-” 등의 先語末語尾에 後行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2.3.3.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確認法을 바탕으로 成立되었던 中世語의 原則法이 直說法, 回想法을 바탕으로 成立되어 있는 現代語의 原則法으로 변모·발전과정은 다르지 않는다. 中世語에서도 推測法, 推測回想法, 確認法은 그 분포가 치우쳐 있으며(圖表참조), 推測法은 用例조차 흔치 못하다는 것을 언급해 둔다.

III. 確 認 法

3.1.0. 確認法이란 現代語에서 直說法과,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라-”를 바탕으로 成立하는 “-것/엇-”과 形態 및 意味上的 相關性을 띤 形態를 가리킨다.¹⁾ 필자가 이곳에서 確認法이라 부르는 것은 종전의 中世語 文法에서 「強勢」 및 「強調」(河野六郎 1950), 「假想」(李崇寧 1961a), 「完了」(李承旭 1967)의 意味가 부여되어 왔던 先語末語尾 “-거/어-”를 말한다. “거”와 “어”는 統合 語幹의 종류에 따라 交替되는 기능만 表示할 뿐, 統辭·意味上的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²⁾ 確認法에는 또 종전의 中世語 文法에서 「기정법」(확정법)의 한 形態로 처리되어오던 “-과/와-”(허웅 1962)도 包括될 수 있다.

종전의 中世語 文法에서는 “-거/어-” 형태에 대한 形態論的 配慮가 철저히 못했다. 確認法 形態素를 分별하는 기준의 설정없이 모든 환경에 나타나는 “거/어”를 同質視하였었다. 統合關係(syntagmatic relation)로나 系列關係(paradigmatic relation)로나 比較의 對象이 되지 않는 語形은 確認法의 形態素로 보지 않는다. 單位 確立에 필요한 語形을 “ㅎ-”로써 提示한다.³⁾ “-거/어-”는 語幹 “오(來)-” 다음에는 “나”로 交替된다.⁴⁾ 이를 위하여 특별히 “오-”도 든다.⁵⁾ 각 語形의 끝의 []속에 高永根(1980)에서 붙인 번호를 넣어 참고하게 한다.

- (1a) ㅎ거다/ㅎ야다/오나다[2], ㅎ얀더[4]; ㅎ얀다[7], ㅎ알까[8]; ㅎ거라/ㅎ야라/오나라[9]; ㅎ거니¹/ ㅎ야니²[14, 15], ㅎ야머[18], ㅎ진맨, ㅎ진뎌; ㅎ진/ㅎ얀/오난[21], ㅎ알[22]
- (1b) ㅎ거니라[1], ㅎ거니여[5], ㅎ거니오/ㅎ야니오[6]
- (2) ㅎ리어다/ㅎ려다[23], ㅎ려니오[24]; ㅎ리어니¹/ㅎ려니¹[26], ㅎ려니²[27], ㅎ리어너[30]
- (3) ㅎ거리랏다[32], ㅎ야리로다[33]; ㅎ야리아[34]; ㅎ야리마르논[35]
- (4) ㅎ과라

1) 現代語의 確認法에 대한 形態論的 分析 및 異形態의 記述은 高永根(1965:§2.5.) 참조.
 2) “-거/어-”의 選擇條件에 관하여는 高永根(1980)참조.
 3) 구체적 語形은 §3.2.1.; §3.2.2. 및 허웅(1975:971-4)과 高永根(1980) 참조. 그리고 確認法의 분석에 필요한 다른 語形은 허웅(1975:958-978) 참조.
 4) “나”가 “거/어”와 기능이 같다는 데 대해서는 유창돈(1963) 참조.
 5) 필자가 제시하는 語形은 非他動詞와 他動詞의 標識를 다 갖춘 相關項目도 있고 그렇지 않은 無關項目도 있다. 前者에는 假想形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實在形만 들었다. 자세한 것은 高永根(1980) 참조.

3.1.1. (1a)의 “ ㅎ 거다, ㅎ 야다, 오나라”는 한편으로는 不定法 “ ㅎ 다”와, 한편으로는 直說法 “ ㅎ 는다”, 回想法 “ ㅎ 더라”와의 比較를 통하여 “-거/어/나-”⁶⁾가 分離된다. 위의 語形은 ㅎ 라體이지만 ㅎ 쇼서體인 “ ㅎ 거이다, ㅎ 야이다”도 實在한다. 그러나 “*오나이다”는 文證되지 않는다. 이들 세 語形의 ㅎ 야씨體 “* ㅎ 쟁다, ㅎ 앵다”⁷⁾ 등을 假想할 수 있다. “ ㅎ 얀더”는 “ ㅎ 더”와 比較하면 “-어-”가 쉽사리 떨어져 나온다. “ ㅎ 안다”는 한편으로는 “-어-”가 缺如된 “ ㅎ 다”와, 한편으로는 直說疑問法 “ ㅎ 는다”, 回想疑問法 “ ㅎ 던다”와 각각 比較함으로써 “-어-”가 얻어진다. “ ㅎ 알까”는 “ ㅎ 을까”를 고려함으로써 “-어-”가 析出된다. “ ㅎ 거라/ ㅎ 야라/오나라”는 “ ㅎ 라, 오라”를 고려하면 “-거/어/나-”가 쉽게 분간된다. “ ㅎ 알”은 “ ㅎ ”과 比較하면 “-어-”가 쉽게 분리된다.

“ ㅎ 거니/ ㅎ 야니”은 반드시 疑問法과 共存하므로 分析이 어려운, 한 單位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거/어-”가 缺如된 “ ㅎ 니”만으로도 反語法의 구성을 이룰 수 있으므로 “-거/어-”의 析出이 가능하다. “ ㅎ 거니/ ㅎ 야니”는 설명법과 共存하는 것인데 “ ㅎ 니”만으로도 그런 구성이 가능하니 分析될 수 있다. “ ㅎ 야며”는 “ ㅎ 며”와, “ ㅎ 진덴”은 “ ㅎ 덴”과 比較함으로써 “-어-”와 “-거-”를 얻는다. “ ㅎ 진덴”은 “ ㅎ 던덴”과 比較함으로써 “-거-”가 析出된다. “ ㅎ 진/ ㅎ 얀/오난”은 “ ㅎ 거다/ ㅎ 야다/오나라”와 軌를 같이한다. 한편으로는 不定法 “ ㅎ ”, 한편으로는 直說法 “ ㅎ 는”, 回想法 “ ㅎ 던”, 推測法 “ ㅎ 린”을 참조함으로써 “-거/어/나-”가 析出된다.

(1b)의 “ ㅎ 거니라”는 한편으로는 不定法 “ ㅎ 니라”, 한편으로는 直說原則法 “ ㅎ 느니라”, 回想原則法 “ ㅎ 더니라”와 比較함으로써 “-거-”가 析出된다. 이 語形의 ㅎ 야씨體 “* ㅎ 거닝다”, ㅎ 쇼서體 “* ㅎ 거니이다”의 再構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ㅎ 거니여”는 한편으로는 不定法 “ ㅎ 니여”, 한편으로는 直說法 “ ㅎ 느니여”, 回想法 “ ㅎ 더니여”와의 比較를 통해 “-거-”가 析出된다. “ ㅎ 거니오/ ㅎ 야니오”도 不定疑問法 “ ㅎ 니오”, 直說疑問法 “ ㅎ 느니오”, 回想疑問法 “ ㅎ 더니오”를 참조함으로써 “-거/어-”를 얻는다.

(2)의 “ ㅎ 리어다/ ㅎ 려다”는 “-거/어-”가 缺如된 “ ㅎ 리라”와 比較함으로써 “-거/어-”가 析出되고 또 “ ㅎ 눗다, ㅎ 닷다”⁸⁾와의 對照에 의해서도 “-거/어-”를 確認할 수 있다. “ ㅎ 려뇨”는 “* ㅎ 리니오”의 補充形 “ ㅎ 리오”와의 比較에 의해 “-어-”가 析出된다. “ ㅎ 리어니/ ㅎ 려니”도 앞의 (1a)의 “ ㅎ 거니/ ㅎ 야니”와 같이 反語法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거/어-”를 “-니”로부터 분리해 내기 쉽지 않다. “-(으)리니”가 反語法의 구성에 쓰이는 例를 찾지 못한 이상 분석을 保留해야 하겠으나 “ ㅎ 거니/ ㅎ 야니”를 좇아 일단 分析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ㅎ 려니”는 敘述形과 共存하는 것이다. “ ㅎ 려니”와 比較하여 “-어-”를 析出하기로 한

6) “-어-”는 “ ㅎ 야다”形을 代表하는 形態로 사용한다.

7) 確認法의 ㅎ 야씨體의 再構는 이미 金忠會(1972)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8) 이들 語形에 대한 분석은 §4.1.1. 참조.

9) 疑問法 語形의 體系化는 다른 자리에서 시도될 것이다. 이 문제는 國語形態素의 分析限界 및 記述 方式을 검토하는 자리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다. “하리어머”는 “하리며”와의 비교에 의하여 “-거-”가 確認된다.

(3)의 “하야리로다”는 “하리로다”를, “하거러랴다”는 “하러랴다”를, “하야리아”는 “하리아”를 각각 고려함으로써 “-어/거-”가 析出된다. “하야리마르느”은 “어”가 缺如된 “*하리마르느”이 文證되지 아니하므로, “-어-”의 分析이 망설여진다. “-어-”가 “-리-”에 先行한다는 (3)의 語形 전체의 均衡을 고려하면 “-어”의 析出이 무리하지 않다.

(4)의 “하과라”의 “-과라”는 語幹이 “고과 副音[1] 및 指定詞로 되어 있을 때는 “-와라”로 交替된다(허용 1962, 1975:796). 그 制約條件은 形態論의이다. 위의 語形은 하라體인데 하쇼셔體 “하과이다”도 實在한다. 하야셔體는 實在하지 않으므로 “*하평다”로 再構할 수밖에 없다.

중전에는 “하과라”를 不定法의 “하나라”와 짝을 지음으로써 「기정법」(확정법)을 수립하고 主體가 話者일 때에 나타난다는 統辭的 特性만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쳤다(許雄 1962). 필자는 우선 構造的 側面에서 “하과라”를 “하거다/하야다”와 짝지어 보려고 한다. 音相上으로 보더라도 “-과라”는 “-(으)나라”보다 “-거/어다”와 더 類似하다. 이런 觀點에 설 때 “-과라”는 “-거/어-”에 話者 表示의 先語末語尾 “-오/우-”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回想法 “-더라”에 “-오/우-”가 붙으면 “-다라”로 형태 바꿈하는 것과 併行된다. 後者は 化合(amalgame)현상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高永根 1978:30), 이곳의 “-과라”도 그러한 方式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速斷을 不許한다.¹⁰⁾ “-거다/-어다”는 動詞의 種類에 따라 선택되지만 “-과라”는 그런 점을 보여 주지 않는다. 他動詞와 非他動詞에 두루 統合된다¹¹⁾

- ① 他動詞 統合例: (1) 便安호물 得과라(得하과라)(月釋 14:77b), (2) 오놀사 스시 언과라(月釋 7:9a), (3) 빗교물 뫋과라(初朴上: 44b),
- ② 自動詞 統合例: (1) 渡度에 시러 니름와라(=…至…)(法華 2:23a), (2) 우리…하마 得호미 닐외와라(法華 2:251a)
- ③ 形容詞 統合例: (1) 우리는…차반도 히브르과이다(初老下:33b), : (2) 내 이제 원히 즐겹과라(法華:137b)

“-거/어-”와, 話者 標識의 “-오/우-”의 統合으로 解釋되는 “-과라”가 다른 화자 표지의 “-오/우-” 統合形과 均衡있는 體系를 形成하기 위하여는 接續의 連結語尾에서의 存在를 確認해야 한다. 화자 標識의 “-오/우-”는 終結語尾와 連結語尾에 나타나기 때문이다(허용 1958, 1962). 終結語尾에서의 “-과-”를 고려하면 “*-과니”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實在하지 않는다. 대신 필자는 “-가니”를 이 자리에 메꾸고자 한다. “-가니”는 반드시 主體가 話者일 때 선택된다(허용 1975:801-2).¹²⁾ “-과라, -가니”를 포함하여 화자 표지의 語

10) 이 문제는 國語形態素의 分析限界 및 記述方式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11) 아래 用例의 “-관더”는 “-(으)너더”와 비교하면 “과”가 析出된다. 이것이 우리의 確認法의 “-과-”와 같은지는 설불리 斷定할 수 없다.

아가아가…물 볼까 하더니 오놀날…아기와 서르 보관더(月釋 23:87a)

12) 허용(1975:800-804)에는 1人稱에 呼應되는 “가”系統의 語尾로서 “-가니오, -가노, -가니와, -간마르”을 들고 있다.

尾들의 活用表를 提示한다.

- a. 호라, 호니 : 호다, 호니
- b. 호노라, 호노니 : 호는다, 호느니
- c. 호리라, 호리니 : 호리라 호리니
- d. 호다라, 호다니 : 호더라, 호더니
- e. 호과라, 호가니 : 호거/야/나다, 호거/어/나니

지금까지 고찰한 確認法의 先語末語尾 “-거/어/나-”와 “-과-”를 統合하여 語末語尾와 叙法에 따라 圖表로 提示한다. 終結語尾의 경우 尊卑法은 省略한다. 다른 곳에서 試圖한 假想形(高永根 1980)도 함께 보인다.

語末語尾 叙法	說 明 法	疑 問 法	命 令 法	接 續	冠 形 形
不 定 法	호거다/호야다/ 오나다 호과라 호거니라 호안더	*호전다/호안다/ *오나다 *호야니여/호거니 여 *호거니오/호야니 오	호거라/호야라/ 오나라	호거니/호야니/ 오나니/ 호가니 호야며	호전/호안/오 난 호알/*호걸/* 오날
推 測 法	호리어다/호려다 *호거리로다/호야 리로다 호거리랴다/*호 야리랴다	*호리어니오/호려 뇨 *호거리야/호야리 야 *호걸까/호알까/ *오날까		호리어니/*호려니 호리어며/*호려며 호야리마르논/*호 거리마르논	

推測法 가운데는 “호야리로다, 호거리랴다, 호야리야”와 같이 確認法에 後行하는 것이 있다. 이들은 推測法이 確認法에 先行하는 나머지 形式과 相補的 關係에 놓여 있다. 그 순서를 바꾸는 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호리어로다(cf. 호야리로다), *호리어랴다(cf. 호야리랴다), *호리어야(cf. 호야리야)

*호거리라(cf. 호리어다), *호야리라(cf. 호려다), *호야리뇨(cf. 호려뇨)...

3.1.2. 統合關係와 系列關係를 기준으로 하여 確認法 形態素를 定立해 보았다. 이에 따라 종래의 強調表示의 形態素를 가진 것으로 처리되어 왔던 대부분의 語尾들은 우리의 確認法의 領域에서 除外되는 셈이다. 그러면 나머지 “거/어/나”를 先接한 語尾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까? 그러한 語尾들을 別稿(高永根 1980)에서 붙인 번호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본다. 實在形만 提示한다.

3. 호거(가)지라/호야지라/오나지라, 11. 호야씨, 12. 호야지, 13. 호거늘/호야늘, 16. 호거니와/호야니와/오나니와, 17. 호거든/호야든/오나든, 19. 호거사/호야사, 20. 호전(간)마르/호안마르/오날마르, 25. 호리어늘/호려늘, 28. 호리어니와/호려니와, 29. 호리어든, 31. 호리언마르/호련마르

25, 28, 29, 31의 네 項目은 13, 16, 17, 20의 語形에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가